



‘소가족 사립가족’

황영성 ‘소가족’ 서울에 풀어 놓다

10~28일 갤러리현대서 개인전

지역 작가로는 드물게 세계 화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진 서양화가 황영성(조선훈대 명예교수·사진) 화백이 가족년을 맞아 소를 풀어 놓고 서울나들이에 나선다.



그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객들에게 ‘소가족’을 풀어놓는 희망을 담아 오는 10~28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사관동 갤러리현대에서 소 작품을 모은 개인전을 갖는다.
지난 2006년 정년을 한 뒤 작품 창작에만 몰두했던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안숙해진 예술혼을 풀어 놓는다.
이번 전시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경기침체로 올 상반기 계획된 전시회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화단인 갤러리현대가 의욕적으로 북 시

지 상호 간의 내밀한 친화력과 교감을 통해 자연의 근원적 질서가 숨쉬게 했다’고 평했다.
황 화백은 1980년대 말 마야, 잉카 등의 문화를 접한 뒤 ‘가족’에 대한 종전 작업을 ‘세계로 열린 가족 이야기’로 확대시켰다. 그 후 미국, 영국, 미국 등에서 활발한 작품발표를 통해 국제 화단의 주목과 평가를 이끌었다.
사람, 꽃, 동물 등의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가족 이야기’는 점차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상을 뚜렷하고 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훈 미술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제25회 몬테카를로 국제회화제 특별상(1991년)과 금호미술상(1993년)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0년 서울 롯데회관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지난 2004년 대구시가 선정한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양산동·팔각정 창작스튜디오 국내 젊은 작가들 몰린다

광주시립미술관 입주작가 18명 선정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인 양산동·팔각정 창작스튜디오가 국내 대표적인 ‘작가 양성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팔각정 창작스튜디오가 예술 활동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고 있어 타지역 젊은 작가들이 앞다퉈 입주자를 희망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스튜디오는 5일 심사를 통해 2009년 입주작가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팔각정스튜디오는 강일호(한국화), 최요안(서양화), 이정복(사진), 안영찬(), 장아름(), 장호현(), 심우삼(조각), 최상진(), 염성기()씨 등이 선정됐다.
양산동스튜디오는 정인수(한국화), 진신하(설치), 서진욱(), 김종완(사진), 강은지(), 양은철(), 김민호(조각), 오민근(), 안정(퍼포먼스)씨 등이 뽑혔다.
이들은 1년 동안 스튜디오에 마련해주는 작업실에서 숙식과 작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전시회 등을 지원받는다. 이들 중 2명은 선발을 통해 타이완의 대표적 예술가 레지던스인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Taipei Artist Village)에도 무료, 입주할 수 있다.

또 큐레이터를 초청해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오픈스튜디오, 문화현장 답사, 입주 작가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 시립미술관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작가 선정의 특징으로 ▲40세 이하의 젊은 작가 위주 ▲조각, 사진, 설치 작가 위주 ▲타지역 작가들의 참여를 꾀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 공공립미술관 중 드물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 타지역 출신 작가들이 대거 공모에 참여, 4명의 작가들이 선정됐다. 또 지난해 이어 입주를 희망한 작가들이 100여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과거 운영

광주 북구 운암동 종의공원 내에 위치한 시립미술관 팔각정 스튜디오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예산이 800여만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5천여만원으로 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창작스튜디오는 입주 작가들이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등 창작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갈수록 입주하려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북구 운암동 종의공원 내에 위치한 시립미술관 팔각정 스튜디오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번 전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경기침체로 올 상반기 계획된 전시회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화단인 갤러리현대가 의욕적으로 북 시

오지운 판소리 ‘심청가’ 공연

오늘 오후 7시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도에 자리잡은 국립남도국악원은 중견 소리꾼 오지운씨 초청 공연을 갖는다. 6일 오후 7시 대극장 진악원.
이번에 선보이는 판소리는 동·서편제의 조화를 이룬 웅장하고 애잔한 느낌의 강산제 보성소리 ‘심청가’다.
남원여중 재학 시절 강도근 명창의 눈에 띈 오씨는 ‘남원 얘기’라는 별칭으로 국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이다.
강도근·성창순·성우항 선생 등을 사사한 오씨는 한양대 국악과를 거쳐 중앙대에서 예술경영 석사를 취득했으며 동아방송대 금상 등을 수상했다.
오씨는 또 오케스트라 아리랑단장,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전임자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지금까지 활동이 뜸했던 오씨는 이번 무대를 계기로 판소리 공연을 더욱 자주 가질 예정이며 후진 발굴과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의 061-540-40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 인턴 사원 모집

광주문예회관

광주문예회관은 문화예술 분야 청년 인턴 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인턴 사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회관 공연 홍보 및 시립 예술단체 활동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응모 자격은 18~29세 이하로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전공 과정 이수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다.
원서 마감은 오는 10일까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말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정희씨 첫 소설집 ‘흙, 스위트 홈’ 펴내



지난 2004년 ‘문화와 경계’ 신인상을 수상한 소설가 장정희(48)씨가 첫 소설집 ‘흙, 스위트 홈’을 펴냈다.
책은 가족의 균열을 세밀하게 그려낸 표제작 ‘흙 스위트 홈’을 비롯해 ‘봄비’, ‘꽃밭’, ‘마이 트윈스’ 등 가족의 의미와 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열 편의 작품을 묶었다.
<Human & Books·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 개인들의 소용 모욕을 다룬 ‘봄날’, 삶이 그쳐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통한 여자의 이야기를 쓴 ‘주유소’, 일상의 밋에 갇힌 한 주부의 내면을 포착한 ‘푸르른 기억-앵무새’도 눈길 끄는 작품이다.
작가는 영랑 출신으로 전남대 국문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5년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Human & Books·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안갤러리 신예작가상 엄기준·서유미씨



빅마켓 시안갤러리는 지역 작가 육성을 위해 ‘2009 올해의 신예작가상’에 엄기준, 서유미씨를 선정했다.
신예작가상은 시안갤러리가 새해를 맞아 기획한 ‘초심전’(1월1~31일)에 참여한 33명의 작가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 뽑혔다.
조선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엄씨는 구겨진 종이를 소재로 사물을 너

넉한 여백을 통해 표현,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학교 출신인 서씨는 사진 필름의 반전된 색채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안갤러리는 신예작가상에 선정된 엄씨 등의 초대전을 무료로 열어 주기로 했고, 향후 이들의 창작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대학 신입생 추천도서 20권 선정

간행물윤리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가 올해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로 최인훈의 소설 ‘광장’ 등 2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광장

(최인훈·문학과지성사) ▲당신들의 천국(이청준·열림원) ▲모던 타임스 I,II(폴 존슨·살림) ▲광기의 역사(미셀 푸코·인간사랑) ▲마르쿠스의 유령들(자크 데리다·이재이북스) ▲자크 라캉 세미나 11(자크 알랭 밀레 엮음·새물결) ▲전체주의의

기원 1,2(한나 아렌트·한길사) ▲극단의 시대 상,하(에릭 호블봄·까치글방) ▲행복의 지도(에릭 와이너·웅진지식하우스) ▲과짜경제학(스티븐 레빗 외·웅진지식하우스) ▲불안(알랭 드 보통·이레) ▲세계시민주의(로메 앤터니 에피아·바이북스) ▲이분법을 넘어서(장화익,최종덕·한길사)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홍성욱·서울대출판부) ▲이중나선(제임스 왓슨·)공리) 등이다.
/연남수스

Multiplex movie listing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ia Cinema, Seniors Cinema, Hami Cinema, and Zeil Cinema. Each section lists movies, showtimes, and special offers.